

2023년 7월 26일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5일 오전 11시15분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홍보실

홍보실장	유 흥 선	02-2290-7150
팀 장	김 우 중	02-2290-7155
담 당 자	양 승 혁	02-2290-7154
관련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sisul.or.kr">www.sisul.or.kr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7매

## 서울시설공단 창립40주년 특별 설문조사, '숨겨진 명소' 4곳 전격 공개

- 시설관리 직원들이 직접 꼽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유용한 장소 선별해 소개
- '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', '서울글로벌센터 가족휴게실', '청계천 판잣집 테마존' 등
- 따릉이 이용 추천코스 4곳도 함께 공개, '서울숲 한강', '4대 고궁', '중랑천 강길' 등
- 한국영 이사장 "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민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에 공단 역량 집중할 것"

- 서울시설공단 (이사장 한국영, [www.sisul.or.kr](http://www.sisul.or.kr))은 시설관리 직원들이 직접 꼽은 '서울의 숨겨진 명소' 4곳을 21일 전격 공개했다.
- 공단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중순 부터 약 한달 간 공단 임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'공단 시설 중 시민들이 모를 수 있는 꿀 장소'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, 이를 토대로 '서울의 숨겨진 명소' 4곳을 선정했다.
-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, 서울월드컵경기장, 청계천 등 문화체육시설들과 추모시설, 자동차전용도로, 지하도상가, 공공자전거 등 서울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며 198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이다.

- ‘숨겨진 명소’ 4곳은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, 서울글로벌센터 유아휴게실,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, 서울추모공원 야외정원 및 갤러리다.
- 우선 ‘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’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좌측에 위치했고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다. 팔각당에는 키즈카페, 전망대 휴게공간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. 지하1층에 위치한 팔각당 전시실은 다양한 작품전시회 및 소규모 연극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.
- 팔각당 1층은 카페테리아 공간으로, 사방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대공원의 푸른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. 2~3층에 위치한 실내놀이터에는 플레이집, 볼풀장, 클라이밍, 낚시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. 이용 요금도 2시간 기준 어린이 3천원, 어른 1천 5백원으로 저렴하다. 4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공원과 멀리 광진구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으며, 시민 누구나 무료로 방문 가능하다.
- ‘서울글로벌 센터 가족 휴게실’은 종각역 6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 센터 1층에 위치한 휴게시설이다. ‘휴게실’과 ‘수유실’이 갖춰졌으며, 기저귀 교환대, 정수기, 전자레인지, 세면대, 냉·난방 설비 등을 비치하여,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및 임산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무더운 여름철 잠시 더위를 피하기에 적합한 도심속 공간으로 공단은 기존 유휴공간을 사회적 약자 배려 목적으로 올해 초 가족휴게실로 리모델링 했다.

- 세번째 장소는 소위 ‘물멍’을 할 수 있는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이다.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‘청계천 판잣집 테마존’은 공단이 지난해 자연생태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시설이다. 지난 2008년 설치돼 60~70년대 생활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물건을 전시해왔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.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의 자연과 생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. 투명한 창문과 나무 벤치가 배치돼 청계천이 한눈에 보이고,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구현했다.
  
-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도심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에 가면 ‘야외공원 및 갤러리’를 만날 수 있다. ‘야외공원’은 서울추모공원 2층 식당 뒷편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.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구성된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청계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볼 수 있다. 1층 갤러리 ‘인연’에는 희망, 위안, 삶에 대한 예찬과 관련된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
  
- 이밖에 이용 건수가 4000만건(2022년 말 기준)을 돌파하며 서울시민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‘시민의 발’ 공공전거 따릉이의 추천코스 4곳도 함께 공개했다.
  
- 먼저 ‘서울숲 한강 코스’다. 서울숲 남문 버스정류소 옆 대여소(대여소 번호 510번)에서 따릉이를 대여해 한강으로 가는 라이딩 구간으로, 뚝섬한강공원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가 있다. 이 코스는 따릉이를 타고 넓게 트인 한강을 즐기며, 동시에 서울숲과 뚝섬한강공원이라는 서울의 자연명소를 누린다는 장점이 있다.

- 두 번째는 ‘4대 고궁 코스’로 창경궁과 창덕궁에서 출발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들려서 경복궁을 거친 후 광화문 방향으로 내려가 덕수궁에서 끝나는 약 4km 정도의 구간이다. 창경궁 입구 대여소(대여소 번호 337번)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출발한 후 4대 고궁을 돌아보고 나서 시립미술관 대여소(대여소 번호 331번)에서 반납할 수 있다. 다만, 고궁 내부는 자전거 출입이 금지되어있으므로 고궁을 관람할 때는 인근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해야한다.
  
- 세 번째는 ‘중랑천 강길 코스’로 금호나들목 대여소(대여소 번호 3550번)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가는, 중랑천 용비교에서 상도교까지의 약 21km 구간이다. 이 코스의 장점은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달리면서 아름다운 꽃길을 지날 수 있다는 점이다. 장미꽃이 아름답게 핀 광진장미정원과 중랑장미공원, 그리고 산책로가 잘 가꾸어진 중화수경공원 등을 즐길 수 있다.
  
- 네 번째는 ‘안양천 가족정원 장미원 코스’로 안양천 주변의 독산근린공원 입구 대여소(대여소 번호 1824)에서 따릉이를 대여해서 한강까지 약 10km 정도의 코스이다. 이 코스에서는 안양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따릉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. 또한, 안양천 가족정원에 있는 장미원은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예쁜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.
  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많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여러분들의 격려로 창립 40주년을 맞게 됐다” 며 “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바탕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, 공단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행복한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- 한편, 공단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확대하고 내부 소속감 고취 및 창의적 문화 조성을 위해 4천여 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‘숏폼 영상 공모전’을 진행했고, 이를 통해 제작된 50여 편의 숏폼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 ‘서시공TV’ (<https://www.youtube.com/@seoulsisul>)를 통해 최근 공개한 바 있다.

〈관련사진〉

1)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



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경



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1층 카페테리아



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2층 실내놀이터



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3층 실내놀이터

2) 서울글로벌센터 1층 유아 휴게실



서울글로벌센터 1층 가족휴게실



서울글로벌센터 1층 모유수유실

### 3)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

	
<p>청계천 판잣집 테마전 전경</p>	<p>청계천 판잣집 테마존 내부</p>

### 4) 서울추모공원 야외정원 및 갤러리

	
<p>서울추모공원 야외정원</p>	<p>서울추모공원 1층 갤러리 인연</p>